

# 완연한 봄 기운... 등산객 산악사고 '주의보'

### 개화시기 안전사고 빈번...광주·전남 최근 5년 873건 부주의 낙상·실족사고도... "지정 등산로 이용해야"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산에 오르는 등산객의 돌발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과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등에 따르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복수초와 변산바람꽃이 지난 2일 꽃망울을 터뜨렸다.

복수초는 무등산국립공원의 화순 만연산 오감연결길과 평두메습지 주변 등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산지 계곡이나 숲 속 습기가 있는 곳에서 피는 변산바람꽃 역시 봄꽃의 대명사로 불린다.

노루귀, 현호색, 털조장나무 등 다양한 야생화도 무등산에서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생 꽃나무 중 가장 빨리 꽃을 피워 일명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생강나무는 오는 19일 전남 완도수목원을

시작으로 만개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벚꽃의 진달래도 27일 완도수목원부터 시작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봄꽃 개화에 따른 등산객이 크게 늘면서 산악사고도 우려된다.

실제로 2020~2024년 봄철(3~5월) 광주·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산악사고는 총 87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020년 171건(광주 65건·전남 106건), 2021년 147건(광주 57건·전남 90건), 2022년 173건(광주 74건·전남 99건), 2023년 210건(광주 71건·전남 139건), 2024년 172건(광주 62건·전남 110건) 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나리가 개화 시기인 3월22일 오후 동구 무등산 서석대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등산 중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헬기 1대, 장비 3대와 소방대원 14명을 투입해 부상자를 구조해 인근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해 벚꽃이 피기 시작했던 3월 31일에도 강진군 도암면 덕룡산에서 '50대 여성이 다리에서 쥐가 나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119 현장 구조가 요청됐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1대, 장비 5대, 소방대원 20명을 투입해 간단한 응급조치 취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김용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등산객들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 후 등산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에는 낙엽이 쌓여 미끄럽고, 건조한 환경 탓에 실족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자신의 체력과 코스에 맞게 산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전남소방본부는 4월과 5월 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대원 산악구조 특별훈련, 산악사고 위험지역 발굴·관리, 산악위치표지판·간이구조구급함 정기점검·관리, 산악사고 예방 홍보 등에 나설 방침이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 조선대-GIST 글로벌대학30 '맞손'

### 대학원 공동 학위과정 운영·기술개발 등 협약

조선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올해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선대학교는 6일 광주과학기술원과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선대 본관 청춘어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선대에서 김춘성 총장과 이재홍 대학원장, 박종락 기획처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이, 광주과학기술원에 서 임기철 총장과 정성호 연구부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천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글로벌

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지역 인유 유출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광주시 정책 연계 산산업분야 육성 인프라 구축 △특성화 중심 대학원 공동 학위과정 운영 등 산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선도 역할 수행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 등이다.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대학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 의식은 양 대학이 가진 지식자산의 결합을 통해 원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캠퍼스의 벽을 넘어서는 양 대학의 협력관계는 지역의 수요 가치를 창출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손을 맞잡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맨발로 청춘학교 개강 6일 광주 서구청 들불마을에서 열린 '맨발로 청춘학교' 개강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광주 북구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을 지원 하는 시책이다. 지난 2022년 광주 최초로 시행한 뒤 4년째 추진 중이다.

북구는 올해 광주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총 4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구의 임차 소상공인 중 작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이들을 지원한다.

북구는 이번 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신청자의 지난해 총 매출액, 카드 매출액, 휴·폐업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1000만원 미만이면 5만원을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저 지원 금액(5만원)을 설정함에 따라 그동안 서류 준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의 노력 대비 지원 금액이 적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던 소상공인의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9일까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peconomy@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화순 개천사 은적암터서 유구·유물 확인

### 건물지 등 50여기 발견... "17세기 이후 추정"

화순 천태산 개천사 은적암터에서 조선시대 후기로 추정되는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

6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30일부터 3월9일까지 화순군 춘양면 가동리 536 일원(1750㎡)에 대한 화순 개천사 은적암터 학술조사가 진행됐다.

정밀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 5기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형(불에 맞은 흔적) 유구 2기, 건물지 2동, 배수로 1기에 서기와류, 청자 종자편, 옹기편 등 45개 유물이 나왔다.

조사 전 은적암터는 6·25전쟁 당시 화재로 폐사된 이후 대나무와 잡목이 자라나 벌목작업을 진행했다.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1호 소형 유구의 윤곽선은

타원형 상태로 90~115cm 길이와 20cm 길이로 확인됐으며, 기와류 4개(흑청·회청색)가 출토됐다.

타원형 상태인 2호 소형 유구는 74~115cm 길이와 25cm 길이로 확인됐고, 기와류 1개(유백색)가 나왔다.

1호 건물지는 1000cm×600cm 규모로 옹기편, 암·수키와편 등 총 12개의 유물이 발견됐고, 창고(법당) 용도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호 건물지는 1600cm×640cm 규모로 아궁이(135cm×90cm)와 구들 시설이 확인됐고, 청자 종자편 3개, 암·수키와편 11개가 수습됐다. 이 건물지는 절에 있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집 '요사채'로 분석된다.

1호 건물지와 2호 건물지 사이 공간에 위치한 1호 배수로는 20~700cm 길이와 25cm 깊이로 파악됐다. 승(승)자로 추정

되는 문자가 기재된 수막새편이 있었다.

은적암터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와 유사한 문양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곡성 당동리 사지, 곡성 천태암, 곡성 태안사가 있다. 이 문화재는 시기가 14세기 이전(곡성 당동리 사지)과 15~17세기(곡성 태안사)로 확인됐다.

개천사 은적암에 관련된 기록은 조선 후기 문헌에서도 등장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제작된 지도 등에는 은적암이 등장해 큰 규모의 암자란 평가를 내렸다.

동북아시아석묘연구소 관계자는 "개천사가 정유재란(1597년) 당시 소실 이후 재건했다는 문헌 기록으로 봤을 때 출토 기와는 17세기 이후로 추정된다"며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후기 개천사와 주변 암자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화순·영구 기자 vip3355@gwangnam.co.kr

# SOCIETY

2025년 3월 7일 금요일

## 오늘의 날씨

예보 06:54 달맞이꽃 11:27  
 맑음 18:33 달맞이꽃 02:00



광주	☀️	-1~12
목포	☀️	0~9
여수	☀️	2~9
순천	☀️	0~11
구례	☀️	-1~12
광주	☀️	3~11
임도	☀️	0~11
진남	☀️	3~8
고흥	☀️	-2~10
진도	☀️	0~10

목포	미물(고)	07:49 / 19:41
여수	미물(저)	12:51 / --:--
여수	미물(고)	02:23 / 14:03
여수	미물(저)	08:25 / 20:48

## 광주천 불법시설물 철거 예고

○...광주 동구가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에 있는 불법시설물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려.

6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내남동 79번지 일원 광주천 강변(내남진 아리제2차~교동교 일원)에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 등 불법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

동구는 무단 설치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려고 했지만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지난 2월 경각금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말뚝을 설치.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하천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

동구는 오는 21일까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뒤 광주천 상류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화순·영구 기자 vip3355@gwangnam.co.kr

## 한미연합훈련 중 포천 민가에 공군 폭탄 오발...15명 부상

### 주민 극심한 불안감 호소... "지반 위 아래로 흔들렸다"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이 사용하는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주민들이 다치고 건물물이 부서졌다.

오전까지 주민과 군인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추가로 통증이나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송이나 치료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어 공식 집계된 부상자의 수는 오후 들어 15명으로 늘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폭탄이 떨어졌다. 인근에 있던 주민은 "갑자기 광 하는 소리와 함께 지반이 위아래로 흔들렸다"며 당시 충격이 엄청났음을 증언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5명이 다쳤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분류했다. 경상 자에는 군 성당에 와 있던 군인 2명과, 마

을에 있던 외국인 2명이 포함됐다.

중상자는 민간인 남성 2명으로 1명은 국군수도병원으로, 1명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각각 긴급 이송됐다.

중상자는 우측 개방성 어깨 골절과 안면부 등을 각각 다쳤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현장에서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추가 이송이나 치료를 요청한 주민들도 있어 공식 집계된 부상자는 늘 수도 있다.

인명피해 외 건물 8개동이 피해를 봤다. 세부적으로 성당 1동, 주택 5동, 창고 1동, 비닐하우스 1동이며 포터 차량 1대

도 일부 파손됐다.

사고 원인은 공군 소속 비행기의 폭탄 비정상 투하로 파악됐다.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직경 8m·길이 2.4m의 폭파구를 만들며, 폭탄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 모습.

1개의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정도의 크기이다.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며 즉시 남아 있지 않은 불발탄 해제 작업을 위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현재까지 떨어진 8발 중 발발탄은 없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역 주민 50여명은 낙탄지에서 떨어진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상태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